

獨도를 사랑하는 고한중학교 同(함께)樂(행복하자)

제 1편 독도 등고선 입체 모형 만들기.

학번 : 이름 :

활동시간 독도 등고선 입체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 활동 후 물음에 답하십시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독도는 ()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 끝에 위치하고,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섬은 (), ()이다. ()가 ()보다 더 크고 해발 고도가 ()m이며 더 높다. 화산체 중 ()에 속하므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 독도는 ()의 영향을 많이 받는 ()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이 잦아 강수량이 많다.



만드는 방법

- 종이 다듬 (태가지) 잘 눌러주세요.
- 종이를 2/3로 접어서 주의를 주며 붙여주세요.
- 한쪽 면에서 먼저 붙여주세요.
- 북쪽, 동쪽 면을 붙인 후 붙여주세요.

※조각이 작아 잃어버리기 쉬우니
순서대로 뜯어서 만드세요!



1 서도 만들기



①번 바닥면 예 ②번 조각을 붙여주세요.

2



가운데 세워진 ③번 바닥면에 ④번 바닥면을 붙여주세요.

3



⑤번 바닥면에 ⑥번 조각을 붙여주세요.

4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등고선을 완성합니다. (바닥면 ①-④번 조각, 바닥면 ⑤-⑥번 조각, 바닥면 ⑦-⑧번 조각, 바닥면 ⑨-⑩번 조각, 바닥면 ⑪-⑫번 조각, 바닥면 ⑬-⑭번 조각, 바닥면 ⑮-⑯번 조각)

5



⑮번 조각으로 세워진 기둥 위에 ⑮번 조각을 붙이면 서도 완성!

6 동도 만들기



⑮번 바닥면에 ⑮번 조각을 붙여주세요.

7



가운데 세워진 ⑮번 바닥면에 ⑮번 바닥면을 붙여주세요.

8



⑮번 바닥면에는 ⑮번 2개의 바닥면을 붙여주세요.

9



⑮번 조각으로 세워진 기둥 위에 ⑮번 조각을 붙이면 동도 완성!

10



이름표를 실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11



붙임편을 주의해서 깃대를 만들어 주세요.

12



깃대에 깃발을 붙여주세요.

13



완성된 서도와 동도의 이름표를 바닥면에 붙여주세요.

14



완성된 서도와 동도의 입체 등고선을 바닥면에 붙여주세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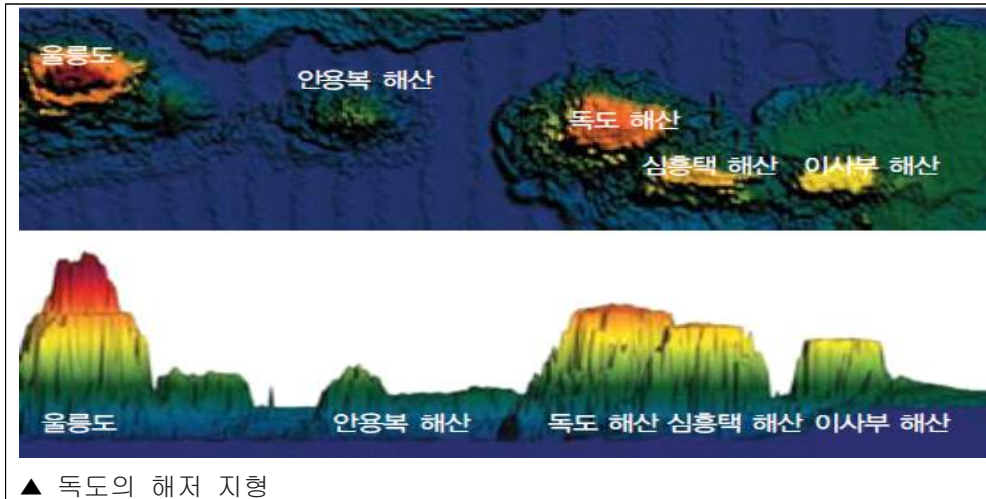


서도에 태극기를 찾아주면 완성

獨도를 사랑하는 고한중학교 同(함께)樂(행복하자)

제 2편 독도를 지킨 수호자를 만나자.

☞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도가 오늘날과 같이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구성된 이유를 형성 과정의 관점에서 위 그림을 참고하여 간단히 적어 보자.

☞ 위 해저 지형에서 쓰여진 해산 인물이름을 보고 특정 인물을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 안용복 그는 누구인가?

☐ 심흥택 그는 누구인가?

☐ 이사부 그는 누구인가?

獨도를 사랑하는 고한중학교 同(함께)樂(행복하자)

제3편 독도를 지킨 수호자를 만나자

 독도를 지킨 수호자 인물 중 한명을 선택하여 편지쓰기 활동을 한다.

[illegible]

獨도를 사랑하는 고한중학교 同(함께)樂(행복하자)

제 4편 독도의 친구들

☞ 다음 자료를 보고 각 질문에 답해 보자. 교과서 110를 참고하여 답하시오.



▲ 솔패랭이



▲ 참나리



▲ 깡이갈매기

독도는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섬의 경사가 심하여 비가 내려도 빨리 흘러내리기 때문에 토양이 척박하여 식생 표면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솔패랭이, 참나리 등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생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독도는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서식지이며, 2010년까지 독도에서 관찰되어 기록된 조류는 101종이다. 독도에서 관찰되는 조류 중 깡이갈매기를 비롯한 몇몇은 () (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또한 독도에 곤충은 129종이 서식하며 많은 () 역할을 하고 있다.

독도는 환경·생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섬 전체가 ()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 독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을 생각하며 우드 아트 활동을 해보자.

☞ 축제 기간에 우드 아트로 만든 독도 친구들을 체험부스에 전시하고 홍보한다.



거북복



수염 고래



깡이 갈매기



강치

獨도를 사랑하는 고한중학교 同(함께)樂(행복하자)

제 5편 독도의 역사

☞ 독도 바로알기 4~9p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 독도의 이름은 ()에서 유래되었어.
울릉도, 독도가 포함된 ()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처음 나온다.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가 점령한 작은 나라로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한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에는 독도가 우산도로 기록되어 있다.
- 숙종실록(1696년) 독도(송도)는 자산도인데 우리의 땅이다.라고 쓰여져 있다. 조선 숙종 때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항의하였다.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 막부는 결국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에서 독도를 ()라고 불렀다. 우리말로 하면 돌섬이다.
- 1904년 ()전쟁의 발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의 ()가 체결되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본의 시마네 현 소속으로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 1905.11.17.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게 되었다.
- 광복이후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하고 한국 땅으로 인정했다. ()선언 (1943년), 포츠담 선언(1945년)에서는 일본은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하며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 라는 내용과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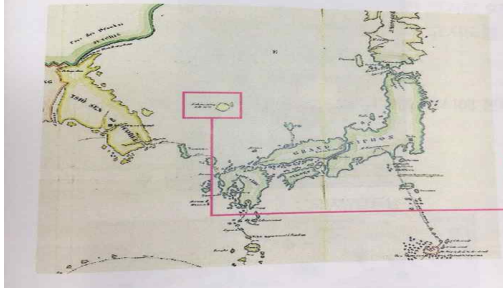
獨도를 사랑하는 고한중학교 同(함께)樂(행복하자)

제 6편 독도 고지도편

☞ 독도의 고지도에 대해 알아보고 엽서에 고지도를 표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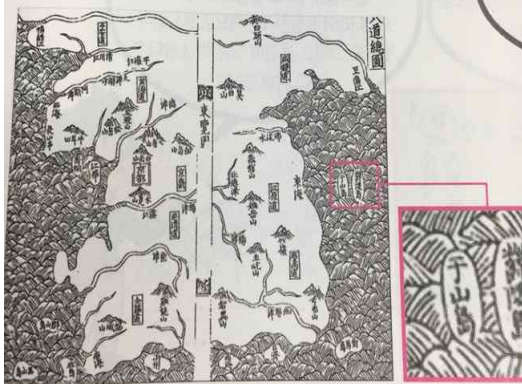
평소 미안했던 친구, 감사했던 선생님, 고마운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자.

• '삼국총도(Carte des Trois Royaumes)'



독일인 클라프로트가 1832년 제작한 삼국총도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수록된 '팔도총도'



이 지도는 신증동국 여지 승람에 수록된 팔도 총도이다. 지도에서 동해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

• '동국대지도'



이 지도는 18세기에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그대로 옮겨 그린 지도예요. 이 지도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于山)이 그려져 있어요. 우산은 지금의 독도를 말하죠.



獨도를 사랑하는 고한중학교 同(함께)樂(행복하자)

제 7편 독도UCC 편
독전(독도전쟁)

독도전쟁

김보영: 일본인, 팽이갈매기, 노랑, 음향

권가영: 안용복, 파랑, 감독

원소희: 일본인2, 초록, 미술

이나라: 강치, 어부, 분홍, 촬영

박지은: 이사부, 이선생(사발), 빨강, 편집

#1 우산국 정벌 -지증왕 13년 이사부 울릉도를 정벌-

이사부: 나, 이사부. 지증왕 13년. 우산국을 정벌하러 왔다. 울릉두릅두릅두릅 아에앙에 (전쟁)

나머지: (정색)

#2 일본인 출격

일본인1: 코코가 리센세에 가탄리스루토 유우 토코로카나? -여기가 이 선생이 관리한다는 곳인가?-

일본인2: 사카나 풍부데스까아~?(경박) -물고기가 풍부하다면서요?-

일본인1: 타이시타 코토나이네 -별 거 아이네ㅋ-

일본인2: 겹나 후드리 찹 찹 데쓰~~ -허벌나게 잡자구요.- (입술을 잇몸에 말아 넣는다.)

#3 강치 등장

강치: 가얏. (물놀이)

일본인1: 스게~!!

강치: (놀람) 카얏!!

일본인2: 가주크 가방 만들, 지방노 오일르 데쓰, 살은 오이시. -가죽은 가방으로 만들고 지방은 기름으로 쓰고 살은 먹는다.- (진지)

강치: (도망) 파닥파닥

일본인1: 야레야레. -이런, 이런- (총 쏜다)

강치: 푸슈- (피했지만 스쳤다.)

#4 안용복과 팽이갈매기

팽이갈매기: (강치가 총에 맞았어.)

안용복: 어잇! (뒷목 잡고 쓰러짐.)

어부: 아아, 안용복님!! 제가 이선생을 찾아오겠습니다!!

#5 어부 이선생을 찾아가다.

어부: 이선생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사발: 드디어 때가 된 건가... 나 이사발, 이사부의 후손으로 몇 십 년을 이곳에서 기다렸다. 안용복님은 어디 계시지?

어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이사발: 내가 유인한다.

#6 이선생 일본인에게 접근

이사발: 이선생 잡고 싶지? 잡아. 내가 잡게 해줄게.

일본인2: 이선생 어디있냐.

이사발: 저 어짜피 못 믿으시잖아요.

일본인들: (의심)

일본인 유인에 성공

#7 일본인 사망

안용복: 주글래. 죽을 때까지 맞고 세 대 더 맞을래? 남에 땅에 와서 탈지탈지하지 마라. 따라 해! 탈지탈지하지 마라.

일본인1: 아니, 이센세 배신!!

이사발: 내가 이선생이야.

일본인들: 장렬하게 사망

(강치 기어들어옴)

#8 독도레인저

1세기가 흐르고

모두: 독도레인저가 이제 독도를 지킨다! (독도 수비대, 경찰, 주민)

1.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

바다사자 과에 속하는 독도강치는 한반도의 동해와 독도주변이 주서식지였다.

바다사자 과에 속하는 강치는 세계적으로 3개 아종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강치, 갈라파고스 강치 그리고 독도강치가 있다.

독도강치의 학명은 일본강치(*Zalophus japonicus*)인데, 이는 독도강치를 최초학술기록으로 남긴 미국인 피터스(Peters)가 강치를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가 일본연안이었기 때문이다.

2. 어느 일본인 어부의 탐욕

우리의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강치의 존재는 일본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키도의 「산인신문」 1894년 2월18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독도의 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섬(독도)에는 바다짐승 강치가 서식하며 그 수는 수백 마리를 헤아린다.”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강치의 존재를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랜 세월 공도 정책이 실시되어 왔던 울릉도에 침입하여 목재의 도벌이나 밀어를 암묵적으로 행해왔다. 특히 강화도조약과 통상장정이 맺어진 이후 일본어민의 침략적인 어업활동이 활발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의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 역시 커져갔다. 강치는 일본어민들의 좋은 사냥감이었다. 근대에 들어서 강치 잡이가 확인되는 최초의 해는 1897년이다.

오키도의 한 어민이 독도에 도항하여 강치 무리가 서식하는 것을 보고 5~60마리를 잡아 내지로 보내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강치의 가죽은 일본 상류층들에게 인기라서 비싼 값으로 거래됐다. 이러한 강치의 수익성에 주목하고 본격적으로 독도에서의 강치 잡이 활동을 벌인 사람은 ‘나카이 요사부로’다. 나카이는 1890년부터 외국영해에서 잠수기 어업에 착수하였으며 1893년에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했다. 1903년에는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시도하였는데 다른 업자들이 달려들자 독점을 따내기 위해 관료들과 접촉하게 된다. 오늘날 독도영유권 문제와 독도 강치 멸종은 한 일본인 어부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3. 나카이, 영토편입을 요청하다.

나카이가 처음부터 일본정부에 독점어업권 허가를 신청한건 아니었다. 당시 나카이는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 했다. 나카이가 쓴 「사업경영개요」를 보면 그는 ‘이 섬(독도)이 울릉도에 부속한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당시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당시 부산의 일본영사관도 독도를 일관되게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취급하여 외무성에 보고하고 있었다.

현재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고유영토설’을 믿는 당시의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고, 동해에서의 러시아 군함의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망루를 설치하기위하여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해군성 수로부장인 가모츠키 가 네유기 제독은 나카이를 이용해 독도에 해군용 감시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므로 대한제국 정부에 빌려 달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그 섬을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나서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라’이렇게 해서 나카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코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 정부의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한다.

4.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불법성

나카이의 청원에 대해 내무성과 외무성의 입장이 달랐다.

내무성의 이노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외무성의 야마자 엔지로는 다음과 같이 독도의 영토편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결국 일본내각은 1905년 1월28일 「독도 편입결정문」을 내놓는다. 이를 공표한 것이 같은 해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시마네현 고시.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강제 편입했다. 영토편입조치의 명분은 ‘무주지선점론’이었다. 이는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섬을 먼저 발견, 선점하여 소유한 국가에게 영유권을 부여하는 논리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그 권원을 명확히 했다. 1906년 4월8일 울릉도 군수 심홍택이 조정에 올린 장계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영토편입 조치는 국제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였다.

5. 광기의 살육

업권을 독점한 나카이는 일본 오키도사의 주도로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를 설립한다. 이 회사는 시마네 현으로부터 강치 잡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지도해 공동으로 어업을 하기위해 세워졌다.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는 1905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여 8년 동안에 무려 1만4천여마리의 강치를 남획했다. 1905년 한 해에만 2803마리를 잡았다. 다음은 나카이 요사부로가 쓴 「이력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연도별 강치 남획 수치다. 1904년 : 2760마리 1905년 : 2803마리 1906년 : 1385마리 1907년 : 1600마리 1908년 : 1680마리 1909년 : 1152마리 1910년 : 679마리 강치 잡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1910년 이후부터는 포획수가 급격하기 줄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가 되면 몇 마리 남지 않게 된다. 얼마나 많은 강치를 살육했는지는 1905년 7월20일 큐슈 사세보(佐世保)기지의 해군사령관이 시마네 현 지사(松永) 앞으로 보낸 항의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해군이 독도에 시설물 건설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나카이 등 수십 명의 어부들이 물개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들을 그대로 독도해안에 투기해 썩은 물개기름이 주변 바닷물을 황색으로 뒤덮어 악취를 견디기 어려우니 위생상 오물의 해안투기를 금지시켜라.”

이 당시 나카이를 비롯한 일본 어민들의 강치잡이 방법에 관하여 1905년 이들을 관찰했던 후쿠이 마사요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이 섬(독도)은 지금 강치사냥철이며 사냥꾼이 35명에 달하고 소총과 그물을 이용하여 강치를 잡는다. 포획이 풍부하므로 볼 만하다. 음력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머물며 연일 강치포획에 종사한다. 이 섬에는 빨감과 물이 없으므로 매일 1~2회 범선으로 오키섬과 교통하며 양식과 빨감을 공급받는다고 한다.”

어린 새끼는 생포되어 동물원이나 서커스 단체에 팔려갔다 나카이 등은 강치의 산란기에 독도에 상주하며 닥치는 대로 강치를 잡았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새끼들도 잔인하게 때려 죽였으며, 암컷은 그물로 잡았고, 몸집이 큰 강치는 총으로 사살했다. 죽은 강치의 썩는 냄새가 울릉도까지 번졌다. 독도주변이 황색으로 뿌옇게 변했다고 하니 이미 어로의 영역을 넘은 광기의 살육이 아닐 수 없다.” 강치의 고기와 피하지방은 기름으로 사용됐고 살과 뼈는 비료로 사용됐다. 어린 새끼는 생포되어 동물원이나 서커스 단체에 팔려갔다. 쇼와시기엔 일본의 기노시타 서커스, 야노 서커스와 같은 서커스단체들이 공연용으로 살아 있는 강치를 많이 요청했다. 이에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는 강치가 생식하는 동굴 입구에 그물을 치고 몰아넣어 포획하는 방법으로 새끼들을 생포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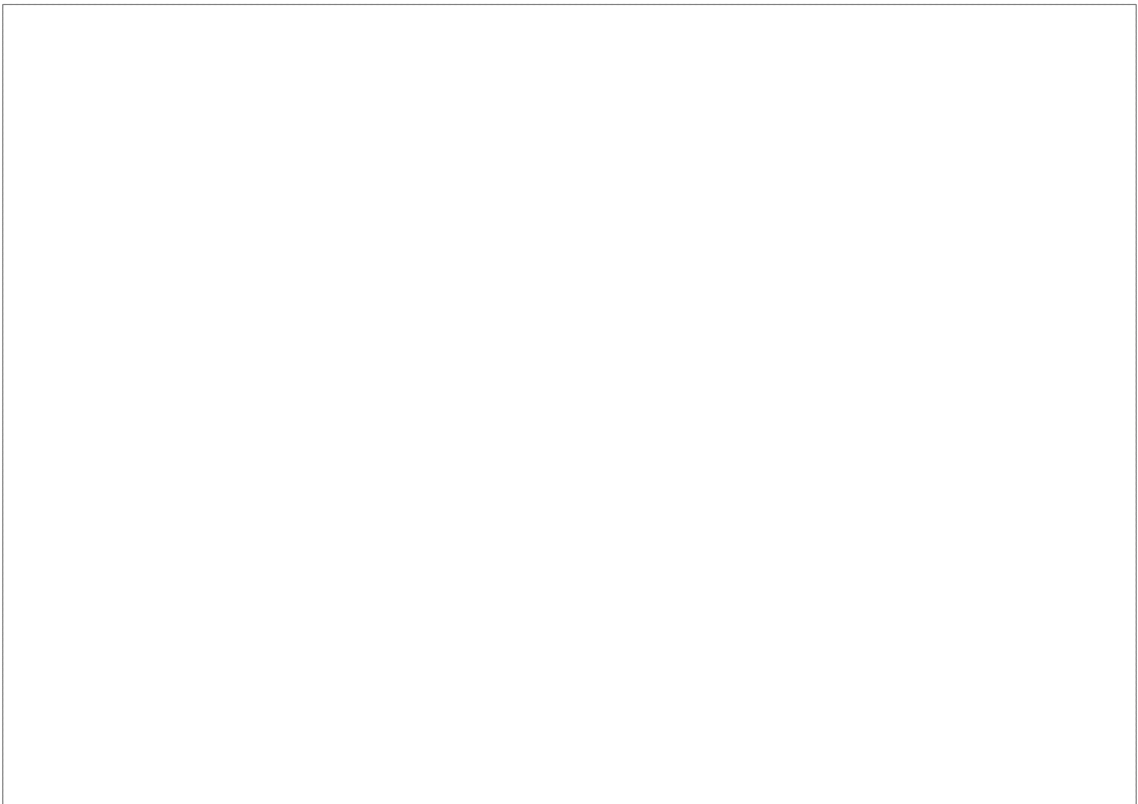
강치 개체수가 이미 급격히 줄은 상태였다. 이 시기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가 서커스 단체로부터 30마리를 주문 받았으나 50일 동안 29마리밖에 잡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독도강치들의 씨를 말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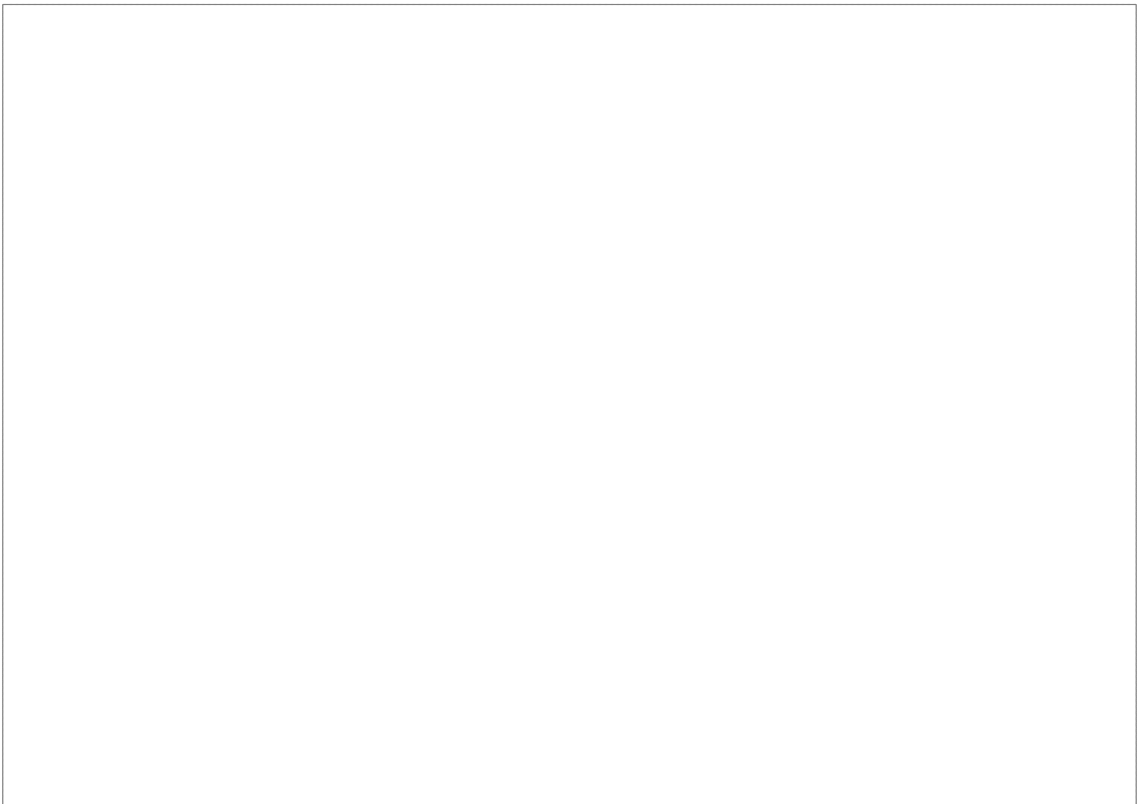
6. 끝나지 않은 강치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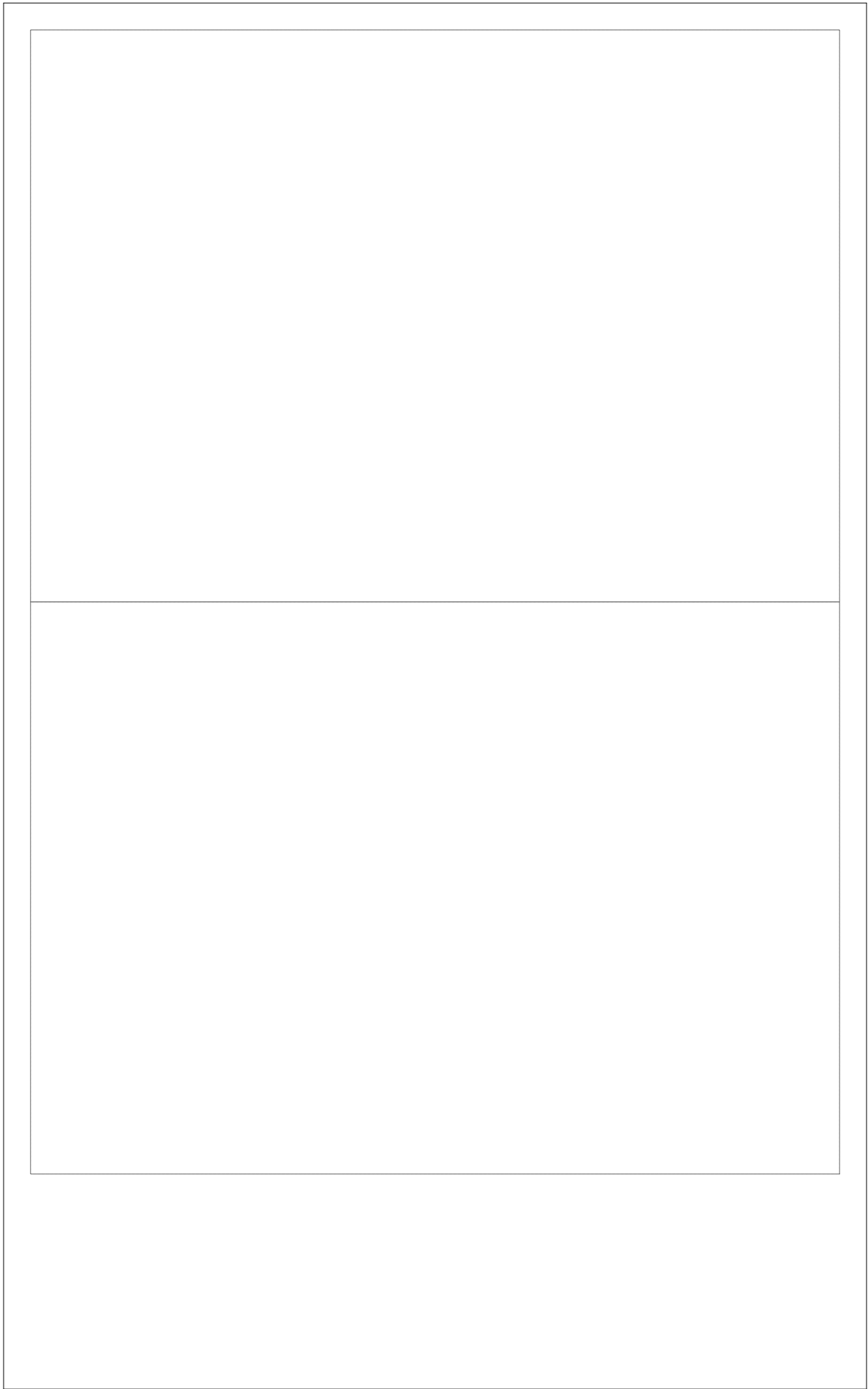
해방 이후 몇 마리 남아있던 강치들은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어 1972년 1마리가 생포된 이후로는 독도와 동해 연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980년대, 구소련에서 개최된 세계 자연보호 국제회의에 참석한 일본대표가 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독도의 강치들을 한국 측 경비대원이 모조리 잡아 멸종상태에 놓였다” 사연을 몰랐던 한국 측 대표들은 반박을 못했고, 한국은 그 자리에서 독도 강치 멸종의 누명을 뒤집어썼다. 그때까지 우리는 강치들의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누구도 강치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다. 강치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은 듯 보였다. 1904년 오키 섬의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가 다케시마에서 강치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영토편입 및 대여를 청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섬을 정식으로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 현 오키섬 관할 소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파렴치하게도 독도강치의 멸종원인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음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멸종시킨 강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나카이의 어업활동은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어획 활동이었고, 마사요시의 말대로 어로의 범위를 넘어선 광기의 학살이었다. 2015년 11월25일, 해양수산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청동재질의 강치 동상을 울릉도에 설치했다.

☞ 독도의 생물 이었던 멸종동물 강치에 대해 느낀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div></div>
<div></div>

